

## “민주당 대통합 참여해야”

### 광주·전남 주민 61.4%...2명중 1명 “대통합때 대선 승리”

광주일보·KBC·갤럽, 대선 여론조사

17대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60% 이상은 범여권이 대통합을 이뤄야 하며, 대통합 가능성 또한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6명은 중도통합민주당 독자 생존보다 범여권 대통합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민들은 범여권이 대통합을 이룰 경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관측했다.

이같은 내용은 광주일보가 KBC 광주방송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Gallup Korea)에 의뢰, 지난 28일 광주·전남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 8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의식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범여권이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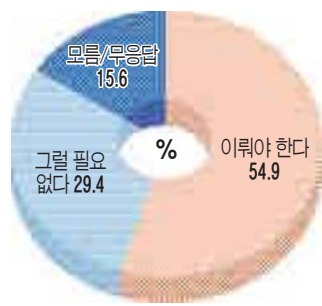
54.9%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통합에 대한 높은 지지를 반영했다. 29.4%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답했고 15.6%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과 통합민주당 대통령과, 시민사회세력 등이 추진 중인 범여권 대통합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55.6%가 ‘있다’, 29.7%는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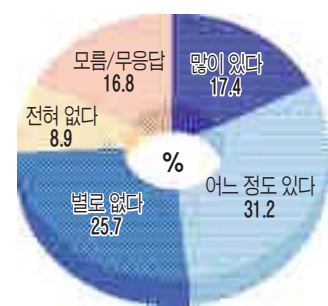
‘제 3지대 대통합신당 합류’나 ‘민주당 사수냐’의 갈림길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공동대표 등 민주당 계열 인사들의 진로에 대해선 61.4%가 ‘범여권 대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답해 ‘독자 생존하는 것이 좋다’(21.7%)는 의견 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지역민들은 또한 범여권이 대통합을 이룰 경우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범여권 대통합에 대한 견해



■범여권 대통합 시 대선 승리 가능성



▶해설 4·5면 ▶조사결과 표 인터넷광주일보(www.kwangju.co.kr)

다.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48.5%, ‘승리 가능성이 없다’는 34.6%였다.

민주당과 범여권의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독자 후보와 범여권 단일 후보가 출마할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9.1%가 ‘범여권 단일 후보’를, 26.0%는 ‘민주당 독자 후보’를 뽑았다.

범여권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2.9%를 얻

어 지난달 광주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리서치 앤 리서치(R&R) 조사에 이어 두 달째 선두를 달렸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17.0%)과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각 6.6%)가 그 뒤를 이었고, 지난 2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조순형 의원의 6.1%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4%포인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백종천(왼쪽)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29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에서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을 만나 탈레반에 의해 억류된 한국인 인질 22명의 석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백종천 특사 면담 아프간 대통령

# ‘맞교환’ 거부...협상 난항

### NHK “아프간, 구출작전 특수부대 파견 준비”

아프가니스탄에 급파된 백종천 대통령 특사가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했으나 아프간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관련기사 3면)

백종천 특사는 피랍사태 11일째인 29일 카르자이 대통령을 만나 현재 연간 30억원 규모인 우리 정부의 개발원조 증대를 대폭 확대해주는 조건으로 ‘맞교환’을 위한 죄수 석방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석방에 부정적인 미국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 이를 받

아들지 않았다. 더욱이 탈레반측도 한국정부가 대통령 특사 파견이라는 최고의 카드를 제시하고 나온 데 대해 죄수들의 석방만을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탈레반 지역 지휘관인 압둘라 잔은 29일 중국 신화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협상은 지속되고 있지만 진전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탈레반은 인질 억류 초기부터 탈레반 죄수들의 석방만이 유일한 협상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아프간 정부대표단은 죄수

석방은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서 일각에서 군사작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양측에서 극적인 타개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상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의 NHK는 이날 아프간 정부가 무력을 동원한 인질 구출작전에 대비해 특수부대 파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억류된 유정화(39·여)씨는 두 번째로 로이터 통신과 전화를 통해 인질들이 군사작전을 우려한 탈레반에 의해 2~3명씩 분산 수용돼 있으며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unipark@ 연합뉴스

## ‘화려한 휴가’ 올 한국영화 최대 흥행...중장년·주부들 ‘발길’

광주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가 개봉 5일만에 14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현재 전국 520개 스크린, 광주 지역 26개 스크린에서 개봉 중인 ‘화려한 휴가’는 개봉 4일째인 28일 41만명이 관람, 누적 관객 100만 5천명을 기록했다.

투자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29일 “일요일 관객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예매율 등을 감안할 때 140만~145만명 정도가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 한국

# 5일만에 140만 관객 ‘광주의 아픔’ 보듬다

영화 중 개봉 첫 주 성적이 가장 좋았던 영화는 ‘그놈 목소리’(총 301만명 관람)로 140만 7천명이 관람했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광주 집단 지구에 위치한 세트장에도 영

화를 본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30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1980년대 도청 인근을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에는 토·일요일 2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다.

또 주말에 대구와 부산 등지를 돌며 무대 인사를 마친 김성경 등 주연배우들도 관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8월 첫주에도 무대 인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CGV광주 영기선 매니저는 “토요일 전체 관객 7천700명중 5천명이 ‘화려한 휴가’를 관람, 개봉 첫 주 성적으로는 ‘스파이더맨 3’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좀처럼 영화관을 찾지 않는 50~60대와 주부, 가족단위 관객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교황 “한국인 인질 무사 귀환” 호소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된 한국인 인질들을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남부의 교황 휴양지인 카스텔 간돌포

에서 열린 주일 미사를 통해 “(납치된)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된 한국인 인질들을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남부의 교황 휴양지인 카스텔 간돌포

우일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stn.ac.kr

신해양시대를 준비하는  
진취적인 젊은이들의 재능을 찾습니다  
경 신규 선박 건조수주 금액 6억불  
속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www.orioncorp.com  
사원모집  
(주)오리엔트조선 · (주)오리엔트중공업